

'만5세 입학' 논란, 출구 못찾고 진퇴양난

당장 폐기 대신 공론화 절차... '추진단' 구성 시민사회 "공론화도 시간 낭비... 즉시 철회"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논란의 출구를 놓고 진퇴양난에 놓였다.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론은 장관 사퇴 요구까지 번졌지만 즉시 철회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제개편 공론화 작업을 위해 차관 주재 '국가책임교육강화추진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업무계획에서 밝힌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기구다.

교육부는 최근 학제개편을 논할 때 '국가책임교육'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단체 간담회부터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간담회'라고 불렀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지난달 29일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찾을 수 있

다.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과 '유보통합', '기초학력 보장'을 묶는 표현이 '국가책임교육'이다.

복수의 교육부 고위 간부들은 '2025년부터 3개월씩 4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길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아직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이 '오해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가 사회적 합의 전에 추진 않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에 몰려선 것처럼 와전됐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부 고위 간부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국가책임교육을 강화해서 출발선상에서의 교육의 기회 균등,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는 선상에서 논의하려던 것"이라며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에서 학제 개편에 모든 힘을 쏟으려던 게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공론화를 하는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 입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책을 추진한 주체는 어디인지 그 의문이 꼬리를 몰고 커지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박 부총리가 초반부터 성과에 몰두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부총리는 임명 전부터 음주운전 논란과 같은 자질 시비에 시달려 왔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박 장관이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감싸는 말이 흘러 나왔다.

거기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맞물린 조직 축소나 폐지 가능성에 시달렸다. 이 같은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박 부총리 참모들이 '만 5세 초등 입학'에 제

동을 걸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알려진 것처럼 입학연령 단축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결국 철회됐다.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해야 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입 공론화,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이 있던 만큼 교육부 관료들이 풀렸을 리 없다.

때문에 교육부가 스스로 '만 5세 초등 입학' 철회를 발표하는 것은 결국 박 부총리의 거취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론화 포기 역시 교육부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출구는 아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운동을 이끌던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는 9일부터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부터는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실무 접촉을 갖고 정책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심 속 독서힐링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도심 속 휴가를 즐기고 있다

화물차 불법개조하면 운전자 종사자격 취소

국토부, '화물자동차 수사업법' 개정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화물운전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에게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불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이전까지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요청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다.

최이슬기자

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 경기보조원도 입건

'업무상과실치사'

순천 모 골프장 내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설 안전 담당자에 이어 경기보조원을 추가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7일 이용객 익사 사고가 발생한 순천 모 골프장 경기보조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순천 모 골프장 연못에 빠져 숨

진 50대 여성 B씨와 관련해 이용객에게 안전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기보조원 A씨는 B씨가 골프공을 줍고자 일행과 떨어져 홀로 울타리가 없는 연못 주변으로 향하는데도,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시설물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골프장 내 사고 예방 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골프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할 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못 인근에 마땅한 사고 예방 시설이 없었다. 때문에 경기보조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최종 검토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오늘부터 중부 최대 300mm '물폭탄' 남부 '짬뽕더위' 계속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하천 지역 등은 비 피해에 대비해야겠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7일 기상청 수시 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의 기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과 오호츠크해 인근 블로킹 강화로 우리나라에 강수가 집중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며 "대체로 중부지방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화요일인 9일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도·서해5도에는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가 예보됐고, 충청북부·경북북부·강원동해안에는 30~80mm(많은 곳 강원동해안, 충청북부 150mm 이상), 전북북부는 5~30mm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휴전선 인근 북한과 우리나라 연천, 파주 지역에는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진강·한탄강·북한강 하류 지역에는 범람 가능성이 큰 만큼 비 피해에 대비해야겠다.

우 예보분석관은 "담 방류 등으로 하류 지역의 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며 "소하천의 범람과 축대 붕괴, 산사태, 낙석에 주의하고 저수지와 뚝 제방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같은 기간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열대야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10~11일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아직은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누적 강수량이 최대 500mm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요일인 12일부터 14일까지는 북쪽 한랭전선 공기가 재차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우 예보분석관은 "기압계 정체 시기의 예측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완도해경,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에 맞춰 통신체계 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차질 없이 운용하기 위해 경비함정 기지국 안경화 작업 등 사전 통신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햇살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 화재예방교육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2일 햇살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직원 및 시설이용자 12명을 대상으로 소방관이 찾아가는 화재예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담양 119생활안전순찰대, 곡성군 복지기동대와 '아름다운 봉사'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곡성군 희망복지기동대와 협업해 지난 21일 삼기면 농소마을에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면서 2022년 상반기 생활안전순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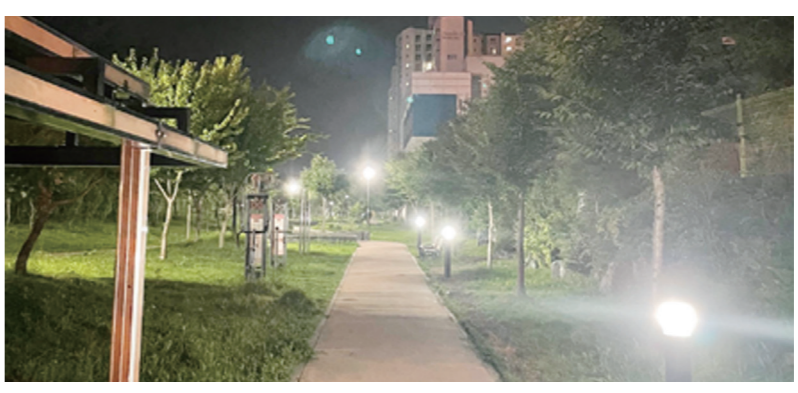
담양=박종영기자



신안소방,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총 1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 공직자, 어린이 등 608명을 대상으로 총 27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신안=이택주기자



무안경찰, 오룡초등학교 후문 산책로 환경개선 실시

무안경찰서(서장 박상현)는 지역 주민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신도시지원단과 협의하여 예산 1천9백만 원을 확보, 오룡초등학교 뒤편 공원 산책로에 대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나주경찰, 보이스포싱 현금수거책 검거 기여 표창장 수여

나주경찰서(금성지구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보이스포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나주시청 청원경찰 김OO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나주=송준표기자